



1QpHab vii.5-viii.3에 나타난 의인(義人)의 구원에 관한 이해

임봉대(감신대)

1, 들어가는 말

2017년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종교개혁 5백주년이 되는 해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다.¹⁾ 이 말씀에 기초하여 루터는 인간의 능동적인 선행과 노력이나 중세 스콜라주의적인 사변이 아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²⁾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종교개혁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1)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70인역(LXX) 헬라어 번역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으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인용하고 있다. 그 외 히브리서 10장 37-38절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다.

2) 김홍기, “성 어거스틴 은총론이 종교개혁 신학에 미친 영향” 『신학과 세계』, (34) (1997년 6월), 73. 이러한 루터의 의인사상은 칼빈에 의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는 것이 되었다(윗글, 93 참고)

되었다.³⁾ 이로 인해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1947년 발견된 사해사본⁴⁾은 제2성전 시대 유대종교사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쿵란 제1동굴에서 발견된 하박국 페세르(1QpHab)⁵⁾는 루터가 영향을 받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된 하박국 2장 4절의 해석을 통해 기원전후 1세기경 쿵란의 유대인 공동체가 의인(義人)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QpHab은 1947년 쿵란지역에 있는 제1동굴에서 발견된 “최초의 일곱 사해 두루마리”중 하나로 하박국 1-2장을 해석한 것이다. 1QpHab의 기원은 대략 기원전 30년에서 기원후 100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데, 본문의 실질적 구성은 기원전 86-63년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기 전의 상황으로 시기를 잡을 수 있다.⁶⁾ 잘 보존된 1QpHab은 페세르(pesher, 복수형 pesharim)의 형태가 쿵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페세르는 쿵란 공동체의 종파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 성경주석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⁷⁾ פֶּשֶׁר(페세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פָּרַשׁ(파타르/해석하다), 아람어 *ptr*, 앓카드어 ‘파샤루’(pašāru)와 관계있으며, ‘해석’(interpretation), ‘이해’(realization), ‘주석’(commentary)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⁸⁾

-
- 3) 장일조, “루터의 義人論과 現代 改新敎의 救援論,” 『신학전망』 (43) (1978년 12월), 79-81 참고.
 - 4) 사해사본(Dead Sea Scrolls)은 1947년 이스라엘 사해(Dead Sea) 주변의 동굴이나 폐허에서 발견된 고대문서들로 특히 쿵란지역의 11개 동굴에서 발견된 것들은 쿵란공동체와 관련하여 쿵란사본(Qumran Scrolls)이라고도 한다. 천사무엘, 『사해사본과 쿵란 공동체』 (대한기독교서회, 2004), 13-14를 참고하라.
 - 5) 하박국 페세르의 공인된 영문표기인 1QpHab는 1Q=쿵란 제1동굴, p=페세르, Hab=하박국의 약자를 조합한 것이다. 김정훈, “하박국 페세르(1QpHab)에 관한 연구—볼프강 이저의 수용미학 이론으로 본 이형들(異形, Variants)의 성격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15를 참고하라. 김정훈은 각 주 17에서 1QpHab 관련 초기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 6) Lawrence H. Schiffman, *Reclaiming the Dead Sea Scrolls: Their True Meaning for Judaism and Christianity*, with a Foreword by Chaim Potok (New York: Doubleday, 1994), 226.
 - 7) George J. Brooke,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New Testamen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5), 59.
 - 8) Devorah Dimant, “Pesharim, Qumran,” *Anchor Bible Dictionary*, vol 5 (1992), 244.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 신앙은 루터가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 2장 4절에 기초한 투쟁에서 얻은 사상이기에 한국 학계에서도 1QpHab와 관련하여 쿨란 공동체의 종말론이나 하박국 재해석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하박국 2장 4절과 관련된 1QpHab의 해석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는 아직 부재한 상태다.⁹⁾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1QpHab의 빛에서, 특별히 하박국 2장 3-4절의 성경본문을 해석한 1QpHab vii.5-viii.3¹⁰⁾의 분석을 통해 의인(義人)의 구원에 관한 이해를 새롭게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義)의 교사(the Teacher of Righteousness)라는 인물에 관해 살펴보아야 한다. 1QpHab viii.1-3의 본문이 의인의 구원을 “그들의 수고와 의(義)의 교사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義)의 교사는 1QpHab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이다(i.13; ii.2; v.9-12; vii.4-5; viii.3; ix.9-12; xi.4-8). 의(義)의 교사는 “사해 사본의 가장 놀랄만한 인물”¹¹⁾이요 “우리에게 알려진 후기 유대교의 가장 위대한 인물”¹²⁾로 평가받는데, 페샤림은 의(義)의 교사에 관한 영감 있는 해석을 내포하고 있다.

9) 1QpHab에 관한 한국 학계의 연구는 위의 각주 4와 5에 소개한 천사무엘의 저서, 김정훈의 석사논문, 그 외에 김덕중, “1QpHab(하박국주석서)를 통해 본 쿨란공동체의 성서해석,” 「구약논단」, 제20집(2006년 4월), 35-58; 조명기, “쿨란 공동체의 종말론적 자기이해,” 「구약논단」, 제22집(2006년 12월), 115-128.; 조병수, “쿨란 하박국 주석(1QpHab) 성경 해석 방식,” 「신학정론」, 27(2) (2009년 11월), 187-215; 송창현, “쿨란 사본의 종말론에 관한 연구,” 「가톨릭신학과사상」, 74(2014년 12월), 190-228 등을 참고하라.

10) 1QpHab는 길이 1.419m에 폭이 12.7cm로 전체 13단으로 되어 있다. 1QpHab vii.5-viii.3은 13단으로 된 하박국 페세르 중 7단 5번째 줄부터 8단 세 번째 줄까지를 의미한다.

11) A. Dupont-Sommer, *The Essene Writings from Qumran*, trans. by G. Vermes (Cleveland-New York, 1962), 358. Walter Grundmann, "The Teacher of righteousness of Qumran and the question of justification by faith in the theology of the Apostle Paul," *Paul and Qumran: Studies in New Testament Exegesis*, edited by Jerome Murphy-O'Connor, O.P., (Chicago: The Priority Press, 1968), 86에서 재인용.

12) Gert Jeremias, *Der Lehrer der Gerechtigkeit* (G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3), 351.

2. 1QpHab vii.5b-viii.3a의 본문분석과 해석

1QpHab은 연속적인 페샤림(continuous pesharim)에 속한다. 연속적 페샤림은 작은 페셰르(pesher)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 본문의 인용과 해석이 적절한 길이로 되어 있다.¹³⁾ 1QpHab은 성경본문(하박국 1-2장)이 한 번에 한 부분씩 먼저 인용되고, 이어서 “그 해석(יְפֶשֶׁר, 피슈로)은 ...”과 같은 형식으로 소개되는 해석이 이어진다.¹⁴⁾ 성경본문의 인용에 이어 시작되는 יְפֶשֶׁר(페셰르/해석)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형식들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על הַקְּבִיר הַזֶּה יְפֶשֶׁר(페셰르 핫다바르 알/...에 관한 말씀의 해석), אֲשֶׁר אָמַר הַקְּבִיר יְפֶשֶׁר(페셰르 핫다바르 아쉐르/...에 관한 말씀의 해석), על יְפֶשֶׁר(피슈로 알/...에 관한 그 해석), על אֲשֶׁר יְפֶשֶׁר(피슈로 아쉐르 알/...에 관한 그 해석), יְפֶשֶׁר(피슈로/그 해석)¹⁵⁾

이것들은 인용부호와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독자로 하여금 해석이 곧 이어진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한다. 학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페샤림의 한 특징은 성경 본문을 글자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본문이 인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히브리 성경의 맛소라 본문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페샤림에 인용된 것은 당시에 성경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¹⁶⁾

1QpHab vii.5b-viii.3a는 하박국 2장 3-4절의 성경본문과 해석을 제공한다. 여기에 하박국 2장 3-4a절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지만 하

13) Shani L. Berrin, "Pesharim,"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2 (2000), 645.

14) Ian Young, "Late Biblical Hebrew and the Qumran Peshar Habakkuk," *The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vol. 8 (2008), 5.

15) Maurya P. Horgan, *Pesharim: Qumran Interpretations of Biblical Books* (Washington, DC: the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1979), 11; Moshe J. Bernstein, "Peshar Habakkuk,"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2 (2000), 648; 김덕중, *윗글*, 38; 조병수, *윗글*, 195-196을 참고하라.

16) James VanderKam and Peter Flint, *The Meaning of the Dead Sea Scrolls: Their Significance for Understanding the Bible, Judaism, Jesus, and Christianity*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2002), 304.

박국 2장 4b절은 빠져 있다. 그러나 1QpHab viii.1-3의 해석은 하박
 국 2장 4b절의 본문이 본래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1) 1QpHab vii.5b-14a

vii,5b
 כִּי אֵד עוֹד חֲזוֹן
 6 לְמוֹעֵד יִפִּיחַ לִקְצֵן וְלֹא יִכְזֹב
 7 פִּשְׁרוֹ אֲשֶׁר יֵאָרִיךְ הָאֲחֵרֹן וְרִתֵּר עַל כּוֹל-
 8 אֲשֶׁר דִּבְרוּ הַנְּבִיאִים כִּי אֵד רִזִּי אֵל לְהַפְלֵה
 9 אִם יִתְמַהֲמַה הַכֹּהֵן לֹא כִּי בֹא יִבֹּא וְלֹא
 10 יֵאָהֵר פִּשְׁרוֹ עַל אֲנָשֵׁי הָאֲמַת
 11 עוֹשֵׂי הַתּוֹרָה לֹא יִרְפוּ יְדֵיהֶם מֵעֲבוֹדַת
 12 הָאֲמַת בְּהַמְשֵׁךְ עֲלֵיהֶם הַקֶּץ הָאֲחֵרֹן כִּי אֵד
 13 כּוֹל-קִיצֵי אֵל יִבֹּאוּ לְחִכּוֹנֵם כִּאֲשֶׁר הַקֶּץ
 14a לָהֶם בְּרִזִּי עֲרַמְתּוֹ

- 5b. 왜냐하면 아직 목시가 있다.
- 6. 정해진 때를 위하여, 종말이 속히 이르고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 7. 그 해석(pesher)은 이렇다. 종말은 연기될 것이고 (8. 예언자들이 선포하
 였던) 모든 것을 넘어설 것이다.
- 8.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들은 놀랍기 때문이다.
- 9.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올 것이요 (10. 연기되
 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10. 그 해석은 진리의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다.
- 11. 율법을 행하고 (12. 진리의) 봉사를 하는 데에 그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10, 진리의 사람들)
- 12. 그들에게 종말은 연기된다. 왜냐하면

13. 하나님의 모든 종말이 그가 (14a, 그들을 위해) 정한 적절한 때에 (14a, 그의 오묘한 비밀에 따라) 올 것이기 때문이다.¹⁷⁾

1QpHab vii.5b-14a는 하박국 2장 3절을 완전하게 인용하고 있다. vii.5,12; viii.3에 있는 כִּי/וְנָחַתְּ (키/왜냐하면)는 히브리 본문 하박국 2장 3b 절에 있는 כִּי/וְנָחַתְּ (키/왜냐하면)와 같은 것으로 음위전환(metathetic)의 ס(알레프)가 함께 한 것이다.¹⁸⁾ 이러한 철자법은 쿨란 히브리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1QpHab에서는 모두 8회가 쓰였다.¹⁹⁾

vii.6에 מִיָּמֶיךָ (야페아흐)는 어근 מָשַׁח (푸아흐/숨쉬다, 불다)의 히필(사역형)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로 ‘서두르다,’ ‘속히 이르다’는 뜻을 갖고 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하박국 2장 3절에 מִיָּמֶיךָ (베야페아흐)로 나온다. vii.6, 9, 11, 14에 나오는 מִיָּמֶיךָ (벨로)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מִיָּמֶיךָ (벨로)이다. vii.7에 מִיָּמֶיךָ (야아리크)는 מָשַׁח (아라크/길다)의 칼 미완료형 3인칭 남성단수로 여기지만 히필 미완료형인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는 의미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vii.6, 12, 13에 반복해서 나오는 קָצַח (케츠/종말)는 종말론적인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로 1QpHab은 קָצַח (케츠/종말) 이데올로기를 통해 당시 종파운동을 하던 집단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마지막 때에 관한 사상을 종말론적으로 발전시켰다.²⁰⁾

vii.8과 14a에 나오는 ‘비밀’ 혹은 ‘신비’라는 뜻의 סֵפֶט (라즈)는 이샤야

17) 김정훈, 조병수 등이 1QpHab 본문 전체의 한국어 번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시된 1QpHabvii.5b-14a; vii.14b-17a; vii.17b-viii.3의 한국어 번역과 관련하여 김정훈, 윗글, 73과 조병수, 윗글, 211을 참고하라.

18) William H. Brownlee, *The Text of Habakkuk in the Ancient Commentary from Qumran* (Philadelphi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nd Exegesis, 1959), 42.

19) J. H. Charlesworth (with R. E. Whitaker, L. G. Hlckerson, S. R. A. Starbuck, and L. T. Stuckenbruck), *Graphic Concordance to the Dead Sea Scrolls* (The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Dead Sea Scrolls Project, Tbingen: J.C.B. Mohr / Louisville: Westminster / John Knox Press, 1911), 311-312에 있는 용례들을 참고하라.

20) 조명기, 윗글, 118.

24장 16절에서만 רָז (라지/나의 비밀)이란 형태로 두 번 나올 뿐 성경의 다른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²¹⁾ 그렇지만 이 단어는 다니엘서 2장 18절, 19절, 27절, 28절, 29절, 30절, 47절(2회)에 나오는 아람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던 페르시아어의 차용어이다.²²⁾ 다니엘서에서 רָז (라즈/비밀)는 “아무도 (인간의 능력으로) 캐낼 수 없는 비밀”을 지칭한다.²³⁾ רָז (라즈/비밀)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숨겨진 비밀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박국 자신도 완전히 알 수 없었던 이 비밀을 하나님은 의(義)의 교사에게 알게 하셨다.²⁴⁾

vii.9에 בּוֹאֵי אֵלֶיךָ (보 야보/반드시 올 것이다)는 하박국 2절 3b절에 בּוֹאֵי אֵלֶיךָ (보 야보/반드시 올 것이다)로 나온다. 그리고 vii.9-10에 나오는 $\text{לֹא יִבְרָא אֱלֹהִים}$ (벨로 예아헤르/그리고 그것은 연기되지 않을 것이다)가 하박국 2장 3a절에서는 $\text{לֹא יִבְרָא אֱלֹהִים}$ (로 예아헤르/그것은 연기되지 않은 것이다)로 접속사 w(바브/그리고)가 빠져 있다.

vii.10-14a는 하박국 2장 3절에 대한 해석으로 진리의 사람들에게 종말이 연기되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의 오묘한 비밀에 따라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이 나태해져서는 안된다는 종파의식을 분명하게 한다.²⁵⁾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해석자는 1QpHab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의(義)의 교사와 그의 추종자들이 적대자들인 거짓의 사람(The Man of Lies)과 악한 제사장(The Wicked Priest)로 인해 겪는 내외적인 충동을 종말론적인 시대와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징조들로

21) 이사야 24:16에 רָז 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후대의 첨가물로 이해하거나, 이사야 24-27장의 이사야 묵시록(the Isaiah Apocalypse)이 보다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는 점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보다 상세한 것은 Otto Kaiser, *Isaiah 13-39: A Commentary*, trans. by R. A. Wilson (Philadelphia: SCM Press Ltd, 1974), 173-174를 참고하라.

22) Maurya P. Horgan, *유태*, 237.

23) 왕대일, 『묵시문학연구: 구약성서 묵시문학 다니엘서의 재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17.

24) 김덕중, *유태*, 52.

25) Joseph A. Fitzmyer, S.J., *To Advance the Gospel: New Testament Studies* (Livonia: Dove Booksellers, 1981), 239.

보았다.²⁶⁾

2) 1QpHab vii.14b-17a

הנה עופלה לוא יושרה 14b

(נפשו בו) פשרו אשר יכפלו עליהם 15

(חטאיהם ולוא י) רצו במשפטם (כיא יכלה) 16

(אל את כולהרשעים) 17a

14b. 보라 (15. 그의 영혼은 그 속에서) 교만하여 바르지 못하리라

15. 그 해석은 (16. 그들의 죄악들은) 배가 될 것이다(니팔 미완료형 3인칭 복수형)

16.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칼 미완료형 3인칭 남성 복수).

17a. (하나님이 모든 악한 자들을)

vii.14b-17a은 하박국 2장 4a절의 본문을 인용한 것이다. 몇 가지 철자법의 차이를 제외하곤 성경본문과 대부분 일치한다. עופלה(우플라/붓다)와 יושרה는(유스라/바르다) 모두 여성형이기 때문에 둘 다 נפשו(나프쇼/그의 영혼)와 관련된다.²⁷⁾ vii.14에 עופלה(우플라/붓다)는 모두 히브리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עפל(우플라/붓다)와 단어와 발음 모두 일치하며 어근은 עפל(아팔)이다.²⁸⁾ עפל(아팔)은 ‘붓다’, ‘부풀어 오르다’는 뜻으로 עופלה(우플라/붓다)는 푸알 분사형이다. 푸알형의 해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충분한 믿음으로 인한 절망으로 인해 포기

26) Devorah Dimant, 윗글, 246.

27) Maurya P. Horgan, 윗글, 39.

28) William H. Brownlee, 윗글, 43.

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⁹⁾

vii.14에 יִשְׂרָאֵל (유스라)는 어근이 יָשַׁר (야샤르/곧다)로 병행 용어인 פְּלָא עוּ (우플라)와 같은 푸알 분사형으로 이해해야 한다.³⁰⁾ 히브리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פְּלָא (우플라)는 푸알 완료형으로, יִשְׂרָאֵל (야스라)는 칼 완료형 되어 있어 어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יָשַׁר (야샤르)는 ‘곧다’, ‘올바르다’는 뜻을 갖고 있다.

3) 1QpHab vii.17b–viii.3a

[וְצַדִּיק בְּאִמּוֹנָתוֹ יִהְיֶה] 17b
VIII,1 פָּשְׂרוּ עַל כּוֹל־עוֹשֵׂי הַתּוֹרָה בְּבֵית יְהוּדָה אֲשֶׁר
2 יִצִּילֵם אֵל מִבֵּית הַמְּשַׁפֵּט בְּעִבּוּר עֲמָלָם וְאִמְנָתָם
3 בְּמוֹרָה הַצָּרֵק

vii.17b.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viii.1. 유다의 집에서 율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해석은

2.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3a. 의(義)의 교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을 심판의 집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3b부터는 하박국 2장 5절에 대한 해석으로 넘어간다)

하박국 2장 4a절에 관한 해석은 이 줄에 몇 개의 단어만 보존되어 있다. 17줄의 끝에 하박국 2장 4b절을 복원하였다. 해석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을 “유다의 집에서 율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것은 콤란 공동체가 자신들의 사회정체성(social

29) 윗글. 44.

30) 윗글.

identity)을 규정하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 콤란 공동체는 자신들을 진정한 율법 준수자들(law-keepers)로 이해하면서 악한 제사장이나 거짓의 사람과 철저히 구별하고 있다.

viii.2에 **בבית המושב** (밋베이트 하미슈파트/심판의 집에서)는 viii.1에 있는 **בבית יהודה** (브베이트 예후다/유다의 집에서)와 병행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심판의 집이란 심판의 실제적인 장소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말에 행하실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³¹⁾ 유다의 집은 적어도 일부 콤란 본문에서는 특정 그룹을 위한 표현인데,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에세네(Essene)라는 말의 배후에 놓여 있는 히브리식 표현이다.³²⁾ 1947년 사해 두루마리들이 발견되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루마리들과 관련된 공동체를 에세네파라고 보았다.³³⁾

viii.2에 **באמונתנו** (브에무나탐/그들의 믿음)은 하박국 2장 4b절 **באמונתו** (브에무나토/그의 믿음으로)를 언급한 것으로 70인역(LXX)에 나오는 **ἐκ πίστεώς μου** (에크 피스튜오스 무/나의 믿음으로) 보다는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אמנתי** (아말/수고)와 **אמונתנו** (에무나/믿음),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אמונתנו** (에무나/믿음)은 **אמנתי** (아말/수고)와 병행을 이루고 있다. **אמנתי** (아말/수고)는 ‘일’, ‘수고’라는 뜻으로 1QpHab x.12에서 “그들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짓 일들로”³⁴⁾라고 표현한 것처럼 율법을 위한 자기 자신의 수고를 의미한다. 그들의 **אמנתי** (아말/수고)는 마지막 때의 심판에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적대자들, 즉 ‘거짓의 사

31) Maurya P. Horgan, *율법*, 40.

32) James VanderKam, "Identity and History of the Community," *The Dead Sea Scrolls After Years*, vol 2, edit. by Peter W. Flint and James C. VanderKam with the Assistance of andrea E. Alvarez (Leiden, Boston, Kln: Brill, 1999), 490-491을 참고하라.

33) Todd S. Beall, "Essene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1(2000), 262. 콤란 공동체가 에세네파라는 주장에 대해 오늘날에는 많은 논쟁들이 있다.

34) William H. Brownlee, "The Jerusalem Habakkuk Scroll,"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12(1948), 14.

람'과 '악한 제사장'도 율법을 행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QpHab는 하박국 2장 4b절에 나오는 יְהוָה אֱמִנָּה (브에무나토/ 그의 믿음으로)를 בְּמוֹרֵה הַחֵטֶק (브모레 하체텍/의의 교사에) 대한 אֱמִנָּה (에무나/믿음)으로 해석함으로써 구원의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정의하고 있다.³⁵⁾ 이것은 기원전후 1세기경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인 쿨란 공동체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든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들에게 있어서 אֱמִנָּה (아말/수고)와 אֱמִנָּה (에무나/믿음)은 양자택 일의 요소가 아니라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viii.1-3에 나오는 하박국 2장 4b절의 해석은 의인, 즉 “유다의 집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 그들의 אֱמִנָּה (수고)와 의(義)의 교사에 대한 אֱמִנָּה (에무나/믿음)을 통하여 심판의 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든 명확한 관점을 제공한다.

3. 의(義)의 교사(The Teacher of Righteousness)

쿨란에서 발견된 800여개의 두루마리 중 다섯 두루마리만이 의(義)의 교사를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 쿨란1동굴 미가 페세르(1QpMic), 쿨란1동굴 하박국 페세르(1QpHab), 쿨란4동굴 시편 페세르 a(4QpPs^a), 쿨란4동굴 시편 페세르 b(4QpPs^b)등 네 개는 폐사립이고 다른 하나는 다마스쿠스 문서(CD)³⁶⁾이다. 그 중에 1QpHab은 4QpPs^a와 함께 의(義)의 교사와 관련한 내용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의(義)의 교사를 구별할 수 있다. 하나는 수난당

35) Gert Jeremias, *Der Lehrer der Gerechtigkeit* (G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3), 144.

36) 다마스쿠스 문서(Damascus Document)는 본문에 “다마스쿠스 땅의 새 계약”이라는 언급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문서를 표기할 때는 CD라고 하는데, ‘카이로 다마스쿠스’(Cairo Damascus)의 약칭이다(천사무엘, 율글, 42 참고).

하는 의(義)의 교사요, 다른 하나는 영광스러운 의(義)의 교사이다.³⁷⁾

1QpHab vii.4-5a는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의(義)의 교사에게 그의 종 예언자들의 말들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해석하였다.³⁸⁾ 심지어 하박국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선포했던 ‘그 시간의 종말’(1QpHab vii.2)도 하나님은 의(義)의 교사에게 알려 주셨다(1QpHab ii.7-10).³⁹⁾

4QpPs^a iii.16에 나오는 “제사장, [의의] 교사에 관한 그의 해석”에 따르면, 콤란 공동체는 의(義)의 교사를 제사장장으로 여겼다.⁴⁰⁾ 그는 아마도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이 배출되었던 사독 가문(the Zadokite family) 출신인 것 같다.⁴¹⁾ 의(義)의 교사는 콤란 공동체의 설립자였으며⁴²⁾ 율법과 예언의 최고 해석자였다. 의(義)의 교사 편에는 진리를 섬기는데 그 손이 피곤치 않은 ‘진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유다의 집에서 율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의(義)의 교사 반대편에는 두 종류의 인물들이 있는데, 거짓의 사람(the Man of Lies)과 악한 제사장(the Wicked Priest)이다.⁴³⁾ 1QpHab는 공동체 내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의(義)의 교사가 소위 ‘거짓의 사람’(גִּזְרֵי אֱשֶׁר־הָאֱלֹהִים 하카잡)과

37) Jutta Jokiranta, "Qumran—The Prototypical Teacher in the Qumran Pesharim: A Social-Identity Approach," *Ancient Israel: The Old Testament in Its Social Context*, edited by Philip F. Esler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257.

38)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A Comparison of Patterns of Religio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241. W. H. 브라운리(Brownlee)는 “의(義)의 교사는 ‘신(神)의 주자’(divine runner)로서 하박국을 대표로 한 모든 예언자들을 읽고 해석하였다”(William H. Brownlee, *읽글*, 112).

39) 김덕중, *읽글*, 49.

40) 1QpHab ii.8; 4QpPsa Frags. 1-10; iii.5-16 참고.

41) Walter Grundmann, *읽글*, 95.

42) CD i.11: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의(義)의 교사를 세우셨으니 그들을 그의 마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4QpPs^a iii.16: “하나님이 (그 앞에) 서도록 선택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선택된 자들의) 공회를 세우도록 하셨기 때문이었다.”

43) 김덕중, *읽글*, 201-203을 참고하라.

‘악한 제사장’(אֲשֶׁר הָיָה לְהָרָשָׁה/하코헨 하라샤)이라는 지도자들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대립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1) 거짓의 사람(The Man of Lies)

거짓의 사람은 의(義)의 교사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외부인들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하였다. 거짓의 사람이란 명칭은 구약성서에서 예언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G. 예레미아스(Jeremias)는 거짓의 사람을 국가의 제사장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단지 의(義)의 교사와 충돌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우두머리로 간주한다.⁴⁴⁾ 1QpHab v.9b-12a는 하박국 1장 13b절의 해석인데, 의(義)의 교사와 거짓의 사람이 회중들 가운데서 서로 충돌하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 해석은 압살롬의 집과 그 신봉자들에 관한 것으로, 그들은 의(義)의 교사가 모욕당할 때 침묵하였으며, 모든 집회에서 율법을 거스르는 거짓의 사람에 대항하는 의(義)의 교사를 지원하지 않았다.”(1QpHab v.9b-12a)⁴⁵⁾

이 본문은 의(義)의 교사가 거짓의 사람에 의해 말로 모욕을 당했을 때 경험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의로운 교사’라고 하는 것 보다 ‘의(義)의 교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거짓의 사람’이라는 호칭과 대조를 이룬다.⁴⁶⁾ ‘압살롬의 집’이라고 불리는 특정 집단은 의(義)의 교사가 곁에 있었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명백하게 그 집단의 이름은 아

44) Gert Jeremias, *율글*, 80.

45) Florntino Garca Martinez, *The Dead Sea Scrolls Translated. The Qumran Texts in English*, second edition (Grand Rapids: E.J.Brill Leiden New York Cologne, 1996), 199.

46) William H. Brownlee, “The Wicked Priest, the Man of Lies, and the Righteous Teacher: the Problem of Identity,” *The Jewish Quarterly Review* 73 (1982), 9.

버지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에 대한 성경 이야기(삼상 15-18장)에서 가져온 것이다.⁴⁷⁾ 일부 학자들은 그 집단이 바리새인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이 종파 내에 있는 한 집단이라고 생각한다.⁴⁸⁾ 의(義)의 교사와 거짓의 사람 사이의 논쟁은 종교적인 해석과 율법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⁴⁹⁾ 거짓의 사람은 율법을 거부하고(1QpHab v.11-12) 이스라엘에 비아냥거리며 거짓 설교를 하는 것(CD i.14-17)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의 추종자들은 ‘변절자들’로 불리는데, 의(義)의 교사의 종말론적인 해석이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⁵⁰⁾

2) 악한 제사장(The Wicked Priest)

악한 제사장은 의(義)의 교사의 가장 큰 적대자였다. 1QpHab viii.8-13에 따르면, 악한 제사장이 처음에는 “진리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공동체를 지원하였지만 곧바로 그 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법을 어기기 시작하였다.⁵¹⁾ 그렇기 때문에 그의 종교적인 헌신이 변질되고 의(義)의 교사에 반대하기 전까지 악한 제사장은 쿰란 공동체에 의해 합법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의(義)의 교사에 대한 반대자로 변하면서 악한 제사장은 의(義)의 교사에 대해 온갖 공격을 하기 시작하였고, 의(義)의 교사를 죽이려고 하였다(4QpPs^a Frags. 1-10; iv.8). 악한 제사장은 심지어 대속죄일(Yom Kippur, the Day of Atonement) 축제 때 의(義)의 교사와 그의 추종자들을 격렬하게 공격

47) Lawrence H. Schiffman, *Reclaiming the Dead Sea Scrolls: Their True Meaning for Judaism and Christianity*, with a Foreword by Chaim Potok (New York: Doubleday, 1994), 119.

48) 윗글, 222.

49) 윗글, 228.

50) Timothy H. Lim, “Liar,”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1 (2000), 494.

51) Lawrence H. Schiffman, 윗글, 233.

하였다.

“그 해석은 독기어린 분노로 의(義)의 교사를 삼키려고 그가 추방된 곳까지 추격한 악한 제사장에 관한 것이다. 그는 축제의 마지막 날에, 대속죄일의 휴식(동안에) 그들을 삼키고, 금식하는 날, 휴식하는 안식일에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나타났다.”(1QpHab xi.4-8)⁵²⁾

이 본문은 하박국 2장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를 해석한 것으로 종파의 중심에, 아마도 콤란에 악한 제사장이 나타나 충돌하게 된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의(義)의 교사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공격의 심각성은 모든 유대인들이 여행을 삼갈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금지된 대속죄일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데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대속죄일에 악한 제사장이 나타난 것은 서로 다른 달력을 사용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악한 제사장이 사용하는 달력에는 대속죄일이 아니었다. 콤란 공동체는 태양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52주 364일을 1년으로 한 반면에, 일반적인 유대 달력은 354일로 된 12달을 1년으로 하는 것이었다.⁵³⁾

하박국 2장 8절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고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를 해석한 1QpHab ix.9-12a는 의(義)의 교사를 악한 제사장에 의해 악행을 당한 것으로 묘사한다.

52) Florntino Garca Martnez, *유태교*, 201.

53) William H. Brownlee, *유태교*, 33.

“그 해석은 악한 제사장에 관한 것이다. 그를 - 의(義)의 교사와 그의 추종자에게 악을 행한 것 때문에 - 하나님은 적들의 손에 넘겨 병들게 하고 죽음의 절망에 빠지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다.”⁵⁴⁾

이 본문은 명백하게 악한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대제사장의 박해를 언급하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악한 제장이었다. 여기서 쿰란 공동체는 악한 제사장이 당하는 고통을 의(義)의 교사에게 악행을 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여겼다. ‘악한 제사장’(הַכֹּהֵן הַרָעָה, 하코헨 하라샤)이란 표현은 הַכֹּהֵן הַרָעָה (하코헨 하로쉬/대제사장)의 유사한 표현을 이용한 언어유희⁵⁵⁾로 악한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암시하고 있다. 악한 제사장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악한 제사장이 요나단(Jonathan, 주전 160-143년)이나 시몬(Simon, 주전 142-134년)이라는 데에 동의한다.⁵⁶⁾ 이들은 유다 마카비(Judah the Maccabee)의 형제들로 하스모네안(Hasmonean) 제사장 왕국의 처음 두 지도자들이었다.⁵⁷⁾ 하스모네안 왕국 이전의 대제사장들은 이집트의 프톨레미(Ptolemies)와 시리아의 셀루시드(Seleucids)에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던 반면에, 하스모네안 왕국의 대제사장은 외국 나라들을 공격하고 그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하스모네안 제사장들은 종파들을 박해한 악한 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⁵⁸⁾

의(義)의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과 거짓의 사람 또는 악한 제사

54) Florntino Garca Martnez, *유태*, 201.

55) William H. Brownlee, "The Wicked Priest, the Man of Lies..." (1982), 9.

56) Lawrence H. Schiffmann, *유태*, 235.

57) *유태*.

58) Moshe J. Bernstein, "Peshar Habakkuk," in: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2*, edited by Lawrence H. Schiffman, James C. VanderK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649.

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 사이의 대결은 콤란공동체가 자신들의 현실에서 경험한 로마의 등장과 성전의 타락을 마지막 때의 징조론 본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콤란 공동체는 거짓의 사람과 악한 제사장과의 대결을 통하여 의(義)의 교사를 따르는 집단은 구성원의 이탈과 변절을 경고하고 공동체의 신앙과 비전을 강화함으로 자신들의 사회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⁵⁹⁾

4. 의인(義人)의 구원에 대한 이해

하박국 2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악한 압제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의인을 억압하도록 하시는 가에 관한 하박국의 두 번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박국 2장 4절은 1절에서 유다가 계속해서 억압받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예언자에게 응답하는 여호와의 말이다. 4절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는 일반적으로 바벨론인을 가리킨다고 이해한다.⁶⁰⁾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져 바벨론을 징벌하시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즉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하박국은 기다려야 한다.⁶¹⁾ 이렇게 볼 때 하박국서 자체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합 2:4b)

59) 조병수, 윗글, 205.

60) 랄프 스미드(Ralph L. Smith), 『미가-말라기, WBC 성경주석 35』(채천석, 채훈 역)(서울: 솔로몬, 2001), 158. 배희숙은 하박국의 저작 시기가 히스기야 시대부터 마카비 시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제안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박국서의 형성가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요시아 개혁시대와 왕정후기를 거쳐 포로기의 편집 단계에서 본문의 기본 상태가 반(反)바벨론의 방식으로 손질된다고 지적한다. 상세한 내용은 배희숙, “하박국 1-2장의 형성사 고찰,” 『구약논단』 제18권 4호(통권 46집, 2012년 12월), 96-118을 참고하라.

61) 랄프 스미드(Ralph L. Smith), 윗글, 159.

는 말씀은 악한 바벨론인의 압제에 직면한 유대인들의 자세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1QpHab은 하박국에서 바벨론을 가리키는 갈대아를 **מַבְּבִלְנִי**(합깃담)으로 해석한다(1QpHab iii.4,9;iv.5,10;vi.1;ix.7). 대부분의 학자들의 1QpHab에 등장하는 깃담이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라는데 동의한다.⁶²⁾ 콰란 공동체는 로마의 등장이라는 자신들의 상황에 직면하여 하박국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였다.⁶³⁾

1) 1QpHab viii.1-3에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주석

1QpHab viii.1-3은 하박국 2장 4b절에 대해 “유다의 집에서 율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의(義)의 교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심판의 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해석한다. 여기에 비록 ‘구속한다’(atone)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선택받은 자들의 수고와 믿음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⁶⁴⁾ **אָמַל**(아말/수고)란 단어는 ‘노동,’ ‘수고,’ ‘일’ 혹은 ‘고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수고’로 이해한다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는 행위를 말한다. W. H. 브라운리(Brownlee)는 1QIsa^a와 1QIsa^b에 “그의 영혼의 고난 때문에 그는 빛을 볼 것이며”라는 내용을 율법의 공로만으로 뿐만 아니라 박해 아래서의 인내로 이해하면서 **אָמַל**(아말)이란 단어를 이사야 53장 11a절 **וְיִשְׂבַּח אֱלֹהֵי יְהוָה וְיִשְׂמַח**(메아말 나프쇼 야르에 야스바/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

62) 김덕중, 윗글, 42. 다니엘 11장 30절에 나오는 깃담을 70인역(LXX)에서는 ~Rwmai/oi(로마사람들)로 번역하고 있다.

63) 김덕중, 윗글, 40. 콰란공동체 성서해석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종말론적인 해석을 들고 있는 학자들에 관해서는 윗글의 각주 19를 참고하라.

64) E. P. Sanders, 윗글, 304.

길 것이라)에 있는 메시아적인 고난에 적용하였다.⁶⁵⁾

비록 1QpHab의 관점이 율법을 행하는 자들의 수고에 의한 의를 말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사야서의 고난에 대한 해석에서 본 것과 같이 콤란인들은 인간의 행위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과된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⁶⁶⁾ 중요한 것은 1QpHab에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다. 이것은 또한 순종을 통한 의(義)의 측면이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 정제된다는 주제와 관련된 것 같다.⁶⁷⁾

어찌됐든 **לַעֲבֹד**(아말)의 의미를 수고(혹은 일)로 이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의 수고와 의(義)의 교사에 대한 믿음은 서로 나란히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의(義)의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수고와 의(義)의 교사에게 신실하게 밀착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⁶⁸⁾ 이런 점에서 1QpHab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서로 상반된 위치에 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행위와 믿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 이것은 행위와 믿음이 구원을 위한 양자택일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서 1QpHab viii.2는 “의(義)의 교사에 대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믿음을 한 인격체와 결합시키고 있으며,⁶⁹⁾ 전치사 **בְּ**(브/으로)와 함께 **בְּאֵמוּנָה**(에무나/믿음)에 관사를 붙였다. 구약성경에 없는 이러한 구성은 헬라이어 성경에 있는 **πίστις ἐν ...** (피스티스 엔.../...를 믿음)

65) William H. Brownlee, *The Midrash Pesher of Habakkuk*. Text, Translation, Exposition with an Introduction by William H. Brownlee (Missoula: Scholars Press, 1979), 127.

66) 윗글, 129.

67) 윗글, 130. 그리고 William H. Brownlee, "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Qumran Scrolls I.,"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32(1953), 13쪽 참고하라.

68) Walter Grundmann, 윗글, 97.

69) Joseph A. Fitzmyer, S.J., "Paul and Dead Sea Scrolls," *The Dead Sea Scrolls After Fifty Years: A Comprehensive Assessment*, vol 2, edit, by Peter W. Flint and James C. VanderKam with the assistance of Andrea E. Alvarez (Leiden, Kln: Brill, 1999), 606.

과 일치한다. 이러한 구성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에베소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4절에서처럼 πίστις(피스티스/믿음)이 믿음의 대상인 ἐν Χριστῷ(엔 크리스트/그리스도를)나 ἐν τῷ κυρίῳ(엔 토 큐리오/주님을)와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⁷⁰⁾

1QpHab에서 콤란공동체 구성원들은 “유다의 집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다. 율법에 대한 신실함이 구원의 기준이며 의(義)의 교사들에 대한 믿음은 율법준수자들(law-keepers) 사이에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콤란 공동체는 사회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집단 내 유사성을 강조하는데, 자기들의 지도자인 의(義)의 교사를 악한 제사장과 거짓말의 사람들과 대비시키면서 구원을 위해 의(義)의 교사를 믿는 것이었다.

2) 바울의 하박국 2장 4절 이해와 종교개혁 신앙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인용하였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7-38절에도 서신서 저자에 의해 하박국 2장 3-4절이 인용되어 있다.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이해하였다. 이 믿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한다.⁷¹⁾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의(義)의 교사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한 1QpHab의 해석은 바울로 하여금 하박국 2장 4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⁷²⁾ 바울은 히브리어 אֱמוּנָה(에무나/믿음)의 헬라어 성경(LXX) 용어

70) Gert Jeremias, *율글*, 135.

71) James C. VanderKam, "Identity and History of the Community," 353.

72) Joseph A. Fitzmyer, S. J., "Paul and Dead Sea Scrolls," 606.

인 πίστις(피스티스/믿음)를 단순히 ‘신뢰’로만 이해하지 않고, 기독교인 용어로 ‘믿음’으로 이해하면서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였다(롬 10:9).⁷³⁾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70인역(LXX)에 나오는 ἐκ πίστεώς μου(에크 피스투오 무/나의 믿음으로)에서 μου(무/나의)를 제거함으로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해석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⁷⁴⁾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하박국에 처럼) 침략자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나 (쿰란 공동체에 처럼) 심판의 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다(롬 6:4b).⁷⁵⁾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후 구원론적으로 ‘의인’(ὁ δίκαιος/호 디카이오스)은 신자를, ‘믿음으로’(ἐκ πίστεως/에크 피스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살리라’(ζήσεται/제레타이)는 종말론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 혹은 구원을 얻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⁷⁶⁾ 특히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sola fide)라는 형식을 취함으로 로마 가톨릭의 공로사상과 철저히 대립하였다.⁷⁷⁾ 종교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교회의 존망이 걸린 신앙조항이었다.⁷⁸⁾ 이렇듯 중세의 행위론적 도덕주의에 반하여 배타적으로 정의되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은 존 웨슬리(John Wesley)의 회심체험에서도 발견된다.⁷⁹⁾ 그러

73) 윗글.

74) 김덕중, 윗글, 54.

75) Joseph A. Fitzmyer, S.J., 윗글, 606.

76) 최갑중, “갈라디아서 3:10-12에 나타난 율법과 믿음의 반위관계,” 『신학논단』 18(4) (2011년 겨울), 1164.

77) 전경연, “개신교의 의인신앙(義認信仰),” 『신학전망』 (32) (1976년 3월), 33.

78) 장일조, 윗글, 79.

79) 이후정, “루터의 빛에서 본 웨슬리의 義認과 聖化,” 『신학과세계』 (7) (1981년 10월), 168.

나 구원의 모든 문제를 교회의 권위에 종속시켰던 중세 가톨릭교회와 대결했던 루터와 달리 웨슬리에게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요청에서 동기를 얻은 의인(義認)이해를 발견하게 된다.⁸⁰⁾ 웨슬리는 의인론(義認論)을 구원의 과정이라는 흐름 속에서 파악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稱義, justification)를 넘어서 성화(聖化, sanctification)의 단계를 말함으로써 거룩한 삶의 행위를 강조하였다.⁸¹⁾

5. 나가는 말

1QpHab은 하박국 2장 4절의 해석에서 유다의 집에서 율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의인(義人)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그들의 수고와 의(義)의 교사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서술한다. 여기서 1QpHab은 믿음을 ‘의(義)의 교사’라는 한 개인과 관련하여 이해하였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적용하였다. 1QpHab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냐 믿음에 의한 것이냐 하는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의(義)의 교사는 공동체의 설립자였으며 율법의 최고 해석자였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의(義)의 교사에 대한 믿음”은 그를 믿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경해석을 따르는 수고도 포함한 것이다. 그의 적대자들인 악한 제사장과 거짓말의 사람은 의(義)의 교사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였다. 의(義)의 교사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고난을 감수하게 하였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한 1QpHab은 **אֱמֶן** (아

80) 이후정, 엿글, 174.

81) Stephen Westerholm, *Perspectives Old and New on Paul. The "Lutheran" Paul and His Critics*, (Grand Rapids: William B. Eermdans Publishing Company, 2004), 73-76 참고.

말/수고)와 의(義)의 교사에 대한 믿음(에무나/믿음)이 의인의 구원을 위한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라 나란히 병행시키고 있다. 그것은 적대자들도 율법을 행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의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행하는 수고와 더불어 의(義)의 교사의 가르침을 신뢰하는 믿음이 요청되었다. 이런 점에서 1QpHab의 관점은 그동안 행위와 믿음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는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만 해석하였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히박국 2장 4b절의 말씀을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과제들을 안고 있는 현대 교회의 상황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6. 참고문헌

- 김덕중, “1QpHab(히박국주석서)를 통해 본 콤란공동체의 성서해석,” 「구약논단」 제20집 (2006년 4월), 35-58.
- 김정훈, “히박국 페세르(1QpHab)에 관한 연구-볼프강 이저의 수용미학 이론으로 본 이형들(異形, Variants)의 성격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 김흥기, “성 어거스틴 은총론이 종교개혁 신학에 미친 영향,” 「신학과 세계」 (34) (1997년 6월), 54-124.
- 배희숙, “히박국 1-2장의 형성사 고찰,” 「구약논단」 제18권 4호(통권 46집, 2012년 12월), 96-122.
- 송창현, “콤란 사본의 종말론에 관한 연구,” 「가톨릭신학과사상」 74(2014년 12월), 190-228.
- 스미드, 랄프 (Ralph L. Smith), 『미가-말라기, WBC 성경주석 35』, 채천석, 채훈 역, 서울: 솔로몬, 2001.
- 왕대일, 『묵시문학연구: 구약성서 묵시문학 다니엘서의 재해석』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4.
- 이후정, “루터의 빛에서 본 웨슬레의 義認과 聖化,” 「신학과세계」 (7) (1981년 10월), 153-104.
- 장일조, “루터의 義人論과 現代 改新敎의 救援論,” 「신학전망」 (43) (1978년 12월), 74-83.
- 전경연, “개신교의 의인신앙(義認信仰),” 「신학전망」 (32) (1976년 3월), 28-43.
- 조명기, “쿰란 공동체의 종말론적 자기이해,” 「구약논단」 제22집 (2006년 12월), 115-128.
- 조병수, “쿰란 하박국 주석(1QpHab) 성경 해석 방식,” 「신학정론」 27(2)(2009년 11월), 187-215.
- 천사무엘, 『사해사본과 쿰란 공동체』,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최갑중, “갈라디아서 3:10-12에 나타난 율법과 믿음의 반위관계,” 「신약논단」 18(4) (2011년 겨울), 1145-1181.
- Beall, Todd S. “Essenes.” In: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1. Edited by Lawrence H. Schiffman, James C. VanderK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62-269.
- Berrin, Shani L. “Pesharim” In: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2. Edited by Lawrence H. Schiffman, James C. VanderK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644-647.
- Bernstein, Moshe J. “Peshar Habakkuk,” In: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2. Edited by Lawrence H. Schiffman, James C. VanderK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647-650.
- Brooke, George J.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New Testa-*

- men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5.
- Brownlee, William H. "The Jerusalem Habakkuk Scroll,"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12 (1948), 8-18.
- _____. *The Midrash Peshar of Habakkuk*. Text, Translation, Exposition with an Introduction by William H. Brownlee, Missoula: Scholars Press, 1979.
- _____. "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Qumran Scrolls I.,"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32 (1953), 8-15.
- _____. *The Text of Habakkuk in the Ancient Commentary from Qumran*. Philadelphi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nd Exegesis, 1959.
- _____. "The Wicked Priest, the Man of Lies, and the Righteous Teacher The Problem of Identity," *The Jewish Quarterly Review* 73 (1982), 1-37.
- Charlesworth, J. H. (with R. E. Whitaker, L. G. HICKERSON, S. R. A. Starbuck, and L. T. Stuckenbruck). *Graphic Concordance to the Dead Sea Scrolls*. The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Dead Sea Scrolls Project. Tbingen: J.C.B. Mohr / Louisville: Westminster / John Knox Press, 1911.
- Dimant, Devorah. "Pesharim, Qumran," In: *Anchor Bible Dictionary, vol 5*. Edited by David Noel Freedman, (New York: 1992), 244-251.
- Dupont-Sommer, A. *The Essene Writings from Qumran*. Translated by G. Vermes, Cleveland-New York, 1962.
- Fitzmyer, Joseph A. S.J. "Paul and the Dead Sea Scrolls," In: *The*

Dead Sea Scrolls After Fifty Years: A Comprehensive Assessment, vol 2. Edited by Peter W. Flint and James C. Vanderkam with the Assistance of Andrea E. Alvarez (Leiden, Boston, Köln: Brill, 1999), 599-621.

_____. *To Advance the Gospel: New Testament Studies*. Livonia: Dove Booksellers, 1981.

Grundmann, Walter. "The Teacher of Righteousness of Qumran and the Question of Justification by Faith in the Theology of the Apostle Paul," In: *Paul and Qumran: Studies in New Testament Exegesis*. Edited by Jerome Murphy-O'Connor, O.P., Chicago: The Priory Press, 1968, 85-114.

Horgan, Maurya P. *Pesharim: Qumran Interpretations of Biblical Books*, Washington, DC: The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1979.

Jeremias, Gert. *Der Lehrer der Gerechtigkei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3.

Jokiranta, Jutta. "Qumran-The Prototypical Teacher in the Qumran Pesharim: A Social-Identity Approach." In: *Ancient Israel: The Old Testament in Its Social Context*. Edited by Philip F. Esler,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254-263.

Kaiser, Otto. *Isaiah 13-39: A Commentary*, trans. by R. A. Wilson, Philadelphia: SCM Press Ltd, 1974.

Lim, Timothy H. "Liar," In: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1. Edited by Lawrence H. Schiffman, James C. VanderK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493-494.

- Martínez, Florntino García. *The Dead Sea Scrolls Translated. The Qumran Texts in English*, second edition, Grand Rapids: E.J.Brill Leiden New York Cologne, 1996.
- Sanders, E. P.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A Comparison of Patterns of Religio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 Schiffman, Lawrence H. *Reclaiming the Dead Sea Scrolls: Their True Meaning for Judaism and Christianity*. With a Foreword by Chaim Potok, New York: Doubleday, 1994.
- Southwell, P. J. M. "A Note on Habakkuk ii, 4,"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19 (1968), 614-617.
- VanderKam, James. "Identity and History of the Community," In: *The Dead Sea Scrolls After Fifty Years, vol 2*. Edited by Peter W. Flint and James C. Vanderkam with the Assistance of Andrea E. Alvarez, Leiden, Boston, Köln: Brill, 1999, 487-533.
- VanderKam, James and Flint, Peter. *The Meaning of the Dead Sea Scrolls: Their Significance for Understanding the Bible, Judaism, Jesus, and Christianity*.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2002.
- Westerholm, Stephen. *Perspectives Old and New on Paul. The "Lutheran" Paul and His Critics*. Grand Rapids: William B. Eermdans Publishing Company, 2004.
- Young, Ian. "Late Biblical Hebrew and the Qumran Peshet Habakkuk," *The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vol. 8 (2008), 1-38.

검색어

하박국
페세르
의
구원
믿음

An Understanding of the Salvation of the Righteous in 1QpHab vii.5-viii.3

Pong Dae Im

Lecturer at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Graduate Theological Union, Ph.D.

In this study, I will attempt to evaluate the salvation of the righteous through the lens of Peshier Habakkuk (1QpHab), particularly vii.5-viii.3, which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ical text of Habakkuk 2:3-4. This requires a previous understanding of a figure of the Teacher of Righteousness since the text describes the salvation of the righteous as "their trouble and fidelity to the Teacher of the Righteous"(1QpHab viii.1-3).

The interpretation of Habakkuk 2:4b in 1QpHab viii.1-3 gives us a clear view of God's salvation from the house of judgment through both **אָמַל** (*'āmāl*, trouble) and **עֲמוּנָה** (*'emuná*, fidelity) to the Teacher of Righteousness. The Teacher of Righteousness is the founder of the

www.kci.go.kr

community and the supreme interpreter of the Law. He confronts opponents from within and without, including "the Man of Lies" and "the Wicked Priest." While the Man of Lies is the leader of opposition among his own community who rises up against the Teacher, the Wicked Priest is the high priesthood of the Temple, from which the Teacher of Righteousness and his community separate themselves.

The perspective of 1QpHab shows that the Qumran community knew the concept of the need for righteousness imputed by God. Here is also a significant development beyond the Old Testament itself in that the Qumran community already understood Habakkuk's words in terms of relationship to a person. This enabled Paul to apply Habakkuk 2:4 to Jesus Christ and to understand it. When it comes to faith in Jesus Christ, Paul understood this text teaches that one is not justified before God through the works of the law but accomplished through faith. This was intensified as the declaration of the Reformation by Martin Luther, which is "Only by faith" (*sola fide*), and became the core of the Reformed credo of Christianity.

However, we can say that, in 1QpHab, the salvation of the righteous is not the alternative of 'by works' or 'by faith.' This understanding leads us to reconsider the Reformed credo "Only by faith" (*sola fide*) in the context of the modern church, which is confronted not only with spiritual issues but also ethical ones.

Keywords

Habakkuk

peshar

righteousness

salvation

faith

- 투고일: 2016년 4월 16일
- 심사일: 2016년 4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5월 9일

www.kci.go.kr